



보도시점 2024. 7. 9.(화) 조간 누리망 · 방송 2024. 7. 8.(월) 16:00

다시 고개 드는 보이스피싱, 범행도구 차단부터 검거까지 총력 대응

- 50%까지 감소했던 보이스피싱 피해의 증가추세 전환에 경찰 역량 총결집
- 범행도구 차단, 국제공조, 제도개선, 대국민 홍보 등 모든 수단 동원

정부는 오늘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 부처 합동 TF를 개최했으며, 그 일환으로 경찰의 보이스피싱 대응성과에 대해 별도로 발표한다.

I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지난 3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저축은행 팀장입니다. 대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대출이 필요하던 A씨가 문자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자 저축은행 직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연결되었고, A씨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와 기존 대출정보를 넘겨주었다.

이후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면 대신 상환해 주겠다.”라는 저축은행 직원의 말을 믿고, 30회에 걸쳐 1억 5천만 원을 B씨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3일 후 텔레그램 대화방은 삭제되고 피해금은 이미 현금으로 인출된 상태였다. 전형적인 대환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것이다. <상세내용은 붙임1 참고>

그간 경찰의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근절대책 추진으로, 최다 피해가 발생한 2019년 대비 작년에는 50%까지 피해가 감소(37,667건→ 18,902건)하였으나, 올해 상반기 들어 피해건수와 피해액이 증가하는 등 최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2024년 1~5월 총 8,434건 · 2,563억 원 상당 피해 발생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15% 감소한 반면, 대환대출 등 대출빙자형 수법은 61% 급증하였다. 또한, 기관사칭형의 경우에도 건당 피해액이 2,062만 원에서 3,462만 원으로 증가하는 등 전체 피해액 또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출이자 절감을 위한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활성화 등 국내 경제 상황을 범죄조직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동시에 △미끼문자 △악성 앱과 원격 제어 앱 △대포통장 △대포폰 △중계기 등 각종 범행도구를 활용하는 등 점점 치밀하게 범행을 시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특히 A씨의 사례처럼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각종 ‘미끼 문자’의 종류나 발송량 등이 작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① 미끼 문자를 비롯한 범행도구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② 해외 콜센터 타격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③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 ④ 대국민 홍보활동 등 보이스포싱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총력대응 중이다.

II 경찰청 보이스포싱 근절대책 추진사항

1 범행도구 단속과 차단

① 중계기(일반전화 · 인터넷전화를 휴대전화 번호(010)로 변작하여 발신)

범죄조직은 국민들이 일반전화나 인터넷 전화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는 사례가 늘자, 휴대전화 번호(010)가 나타나도록 발신번호를 변작해주는 중계기를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통신사와 협업하는 한편, 시도경찰청에 전담 대응팀을 편성하는 등 변작 중계기의 신속한 탐지 · 단속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1~5월간 중계기 운영 및 관리책 82명을 검거하였고, 중계기와 심(SIM)카드 등 4,489대 · 중계기용 통신 단말기 5,255대에 대해 차단을 요청하였다.

(관련 수사사례) '24. 3.~6. 보이스포싱 범행에 이용되는 발신 중계기를 유통 · 운영한 유통업자, 운영자 등 19명 검거(구속 14)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② 대포폰(대포유심 · 계정)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십 대의 대포폰(유심)을 중계기에 연결하여 이용하는가 하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대포계정을 생성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는 등 대포폰을 이용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계정 발견 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기관에 신속히 중지요청 중으로, 지난 5개월간 전화번호 32,527개 · 카카오톡 계정 8,437개에 대해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범행 도구별 전담 수사팀을 지정, 불법 개통 · 유통조직 소탕을 위한 집중수사도 진행 중으로, 1~5월간 대포폰 유통업자 · 명의자 등 863명을 검거하였다.

(관련 수사사례) '23. 6.~'24. 3. 대포폰 유심 953대를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한 유통업자와 대포폰 명의자 20명 검거 <부산경찰청 연제서>

③ 자금세탁 조직원(인출 · 수거책)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하부 조직원은 마치 범행도구처럼 끊임없이 대체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기동력과 현장성을 갖춘 형사들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하였다.

그 결과 5개월간 인출 · 수거책 등 자금세탁 조직원 검거인원은 총 4,110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4% 증가하였고, 전체 구속인원도 전년 대비 13% 증가하는 등 강화된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관련 수사사례) '24. 1.~5.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수거한 1~3차 수거책, 자금관리책 등 60명 검거 <경기남부경찰청 평택서>

② 해외 콜센터 타격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올 상반기 경찰과 중국 등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콜센터 총책 등 총 181명을 현지에서 검거하였다.

특히, 지난 5월 27일 중국 공안부와의 적극적 국제공조를 통해 핵심 도피사범으로 지정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34세, 남)와 공범 2명을 중국 현지에서 검거하였는데,

(관련 수사사례) '19. 11.~'24. 4. 중국 내 콜센터 운영, '저금리 대환대출', '기관사칭' 등 수법으로 피해자 150명으로부터 36억 원 상당 편취한 총책 등 3명을 중국 현지에서 검거하는 등 총 13명 검거·9명 인터폴 적색수배 중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이는 2024년 5월 16일에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 치안총수회담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왕샤오퉁 중국公安부장이 마약·보이스피싱 등 초국경범죄에 대한 대응 협력 강화를 약속한 지 10여 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초국경범죄에 있어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범죄 피해자와 증거자료는 국내에, 범죄조직은 중국 등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범인 검거와 처벌을 위한 국가 간 공조수사는 필수적으로, 경찰은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전국의 사건을 콜센터 조직을 중심으로 병합하여 집중수사하는 등 국외 콜센터의 거점 특정을 위한 수사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③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

① 피싱범죄 관련 미끼문자 대응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미끼문자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는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직접 연락하도록 하는 범죄수단이다.

※ 수신자가 문자를 보고 문의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도록 유도함

(미끼문자 사전차단) 경찰은 미끼문자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문자에 대해 차단이 이뤄지도록 관련 자료를 통신사에 보내 필터링을 요청 중으로, 특히 해외에서 발송되는 미끼문자 차단을 위해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주요 피사칭기관을 상대로 실제 국제발신 형태로 업무 목적의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사실확인을 요청한 상태이다. 아울러, 범행과정에서 국내 휴대전화의 로밍서비스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문자를 발송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로밍서비스 이용 시에도 [국외 발신]과 같은 식별문구 삽입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제기한 결과, 이달부터 안내문구 표기(로밍 발신)가 강화되었다.

(미끼문자에 포함된 전화번호 차단) 미끼문자 수신자의 전화를 유도하는 대표번호(15xx / 16xx 등)에 대해서도 통신사에 이용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미끼문자 수신자 대상 경고 문자 발송)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차단을 회피해 발송된 문자에 대해서는, 문자 수신자를 대상으로 범죄임을 알리는 내용의 경고 문자를 발송하는 등 미끼문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대응하고 있다. (※ 올해 약 113만 건 발송)

② 수표 인출·편취사례 대응

또한, 최근 고액의 현금 인출 시 은행 창구에서 문진을 통해 피해를 막는 사례가 늘자 피해자에게 수표 발행을 요구하여 수거해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금융권에 관련 사례를 공유하며 강화된 문진을 요청하였다.

④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그간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여러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각적 홍보활동을 추진해왔지만, 수많은 콘텐츠는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나는 이미 피싱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라고 느끼게 해 진화하는 수법에 관한 정보 습득을 일부 방해하기도 하였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피해자 개인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짜인 조직범죄 활동의 결과물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올해는 경각심 전달을 목표로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의 박지환 배우가 출연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TV 광고 등으로 송출하고(7월~), 지하철 역사와 열차 내 홍보물 게시(3월), 라디오 공익광고(5~11월) 등을 진행 중이며, 올림픽이 열리는 이달부터는 구체적인 피해사례, 범행수법 등 내용을 담은 홍보 콘텐츠를 TV, 유튜브, 포털사이트, 영화관, 대중교통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국방부 등과 협업하여 학부모(자녀 납치병자·메신저피싱), 군 장병(기관사칭·대출병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들에게 당부드리는 말씀

그간 경찰에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 결과 작년 11월부터 지속 증가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올 3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구분	'23년 11월	12월	'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건수	1,761	1,813	1,844	1,195	1,977	1,780	1,639

다만, 감소 폭이 크지 않고, 미끼문자·전화를 통한 범행 시도가 끊이지 않는 등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7월까지 추진 중이던 특별단속을 10월까지 연장하는 등 긴장을 놓지 않고 보이스피싱 대응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 2024년 1~5월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범 총 6,941명 검거(구속 632) /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인원 3% 감소, 구속 13% 증가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보이스피싱은 범인 검거뿐 아니라 피해 예방을 위한 범행도구 차단, 통신·금융제도의 개선과 예방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투자리딩 사기와 같은 조직성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신속·체계적 범정부적 대응과 예방을 위한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면서, “경찰청에서는 올해 다중피해사기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개그 프로그램에서 어눌한 표준어, 연변 사투리 등으로 보이스피싱 사범을 희화화하는 것과 달리 현재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누가 들어도 진짜로 믿을 정도’의 자연스러운 표준어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토대로 범행을 시도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피해 대부분이 미끼문자와 악성앱을 기반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①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거나, ② 타인의 앱 설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되며, ③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는 경우 반드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 또는 112로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마약조직범죄수사과 피싱범죄수사계	책임자	총경	안찬수	(02-3150-0141)
		담당자(사건 관련)	경정	백의형	(02-3150-2782)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붙임1
피해자 A씨의 피해과정(6일간 5회에 걸쳐 피해금 편취)

피해 과정	범행도구
‘○○저축은행 팀장 △△△입니다. 대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수신	미끼문자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가 직접 연락하도록 유인하는 도구)
해당 링크를 클릭하자 △△△팀장과의 텔레그램 대화방 개설, 대환대출 관련 상담 진행 후 피해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전화할 예정”이라고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팀장이라면서 피해자에게 전화(010 번호 현출)	중계기 · 대포폰 (해외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 국제전화 식별표시가 현출되므로 중계기에 연결된 대포폰 번호로 발신번호 변작)
△△△팀장이 자세한 상담을 하자며 카톡 대화방 초대	대포계정 (대포폰 번호를 기반으로 생성된 대포계정, 계정명은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신청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앱’ 설치 권유받아 앱(*.apk) 설치 후 해당 앱에서 1억 3천만 원 대출 신청(기존 대출정보 입력)	악성 앱 (피해자 휴대전화를 감염시켜 통화 수 · 발신, 문자메시지 등 탈취)
□□카드(15XX-XXXX) 사칭 전화가 걸려와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 3천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이 들어갈 예정이다. 피해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가상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 금융결제원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안내	악성 앱 (발신번호에 카드사의 대표번호 15XX-XXXX를 덧씌워 피해자 휴대전화에 현출)
서민금융진흥원 △△△팀장이 카카오톡으로 □□카드 대출 완납증명서(위조) 전송	대포계정 (대포폰의 번호를 기반으로 생성된 대포계정, 계정명은 ‘서민금융진흥원’)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베이커리 앞에서 금융결제원 직원에게 현금 3천만 원 전달	현금 수거책(인적 범행도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 구직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모집)
▲▲은행 사칭 전화가 걸려와 기존 대출금 상환 협박(□□카드와 유사), 금융결제원 직원에게 현금 2천만 원 전달	악성 앱, 현금 수거책(인적 범행도구)
서민금융진흥원 △△△팀장이 카카오톡으로 ▲▲은행 대출 완납증명서(위조) 전송	대포계정

피해 과정	범행수단
○○은행 사칭 전화가 걸려와 기존 대출금 상환 협박(□□카드와 유사), 금융결제원 직원에게 현금 3천만 원 전달	악성 앱, 현금 수거책(인적 범행수단)
서민금융진흥원 △△△팀장이 카카오톡으로 ○○은행 대출 완납증명서(위조) 전송	대포계정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와 “기존 대출금을 초과한 대출을 신청하여 보증이 필요하다. 불러주는 계좌로 보증금 3천만 원을 보내면 지금 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라고 안내 ●●은행 계좌(B씨 명의)로 3천만 원 송금	대포통장 (B씨는 돈을 받고 통장을 판매한 사람)
불상자가 B씨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3천만 원을 현금 인출	현금 인출책(인적 범행도구) (은행을 돌며 현금을 인출, 구직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모집)
금융감독원(1332) ☆☆☆감독관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와 “기존 □□카드 대출금 상환시 △△△팀장이 인우보증을 하였는데, 이는 불법이라 사기대출에 해당한다. 불법으로 대출 받은 금액의 일부를 우선 변제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겠다”라며 “직원을 보낼 테니 우선 변제금 1천만 원을 전달하라”고 협박, 금감원 직원에게 1천만 원 전달	악성 앱, 현금 수거책(인적 범행도구)
수상함을 느껴 대출내역 조회,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사실 확인 후 경찰에 신고	

※ 피해자 A씨가 연락한 사람들은 전부 특정 기관을 사칭한 피싱 조직원임에도, A씨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앱으로 인해 피해자는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 믿게 됨

⇒ 악성 앱이 설치되면 어디에 전화하더라도 범죄 조직에게만 연결되므로, 전원 OFF 또는 비행기모드 전환 후 다른 전화를 사용하여 신고해야 함

붙임2

보이스피싱 발생 · 검거 현황

연도별 보이스피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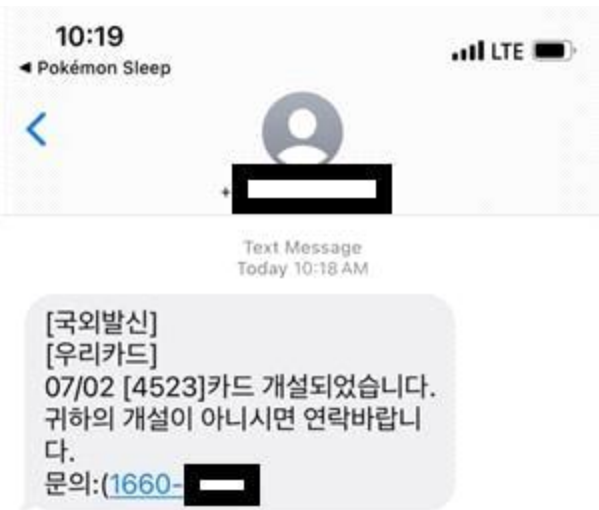
구분	합 계				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발생 건수	피해 (억원)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피해 (억원)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피해 (억원)	검거 건수	검거 인원
'21년	30,982	7,744	27,647	26,397	7,017	1,741	1,954	1,895	23,965	6,003	25,693	24,502
'22년	21,832	5,438	24,522	25,030	8,930	2,077	4,103	4,500	12,902	3,361	20,419	20,530
'23년	18,902	4,472	20,991	22,386	11,314	2,364	7,352	8,039	7,588	2,108	13,639	14,347
'23년(~5월)	7,363	1,713	6,870	7,178	4,515	931	2,162	2,277	2,848	781	4,708	4,901
'24년(~5월)	8,434	2,563	6,922	6,941	3,850	1,333	2,207	2,247	4,584	1,230	4,715	4,694
증감	15%	50%	1%	-3%	-15%	43%	2%	-1%	61%	57%	0%	-4%

연도별 보이스피싱 연령별 현황

구분		합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21년	기관사칭	7,017	4,251	778	558	529	420	481
	대출사기	23,965	1,208	2,521	6,197	9,035	4,358	646
'22년	기관사칭	8,930	6,196	716	451	565	521	481
	대출사기	12,902	609	1,105	2,962	4,813	2,941	472
'23년	기관사칭	11,314	8,494	806	369	492	631	522
	대출사기	7,588	392	815	1,956	2,657	1,513	255
'23년 (~5월)	기관사칭	4,515	3,389	353	138	198	260	177
	대출사기	2,848	138	277	683	1,018	624	108
'24년 (~5월)	기관사칭	3,850	2,163	340	211	334	487	315
	증감	-15%	-36%	-4%	53%	69%	87%	78%
	대출사기	4,584	289	585	1,153	1,518	915	124
	증감	61%	109%	111%	69%	49%	47%	15%

붙임3

최근 발송된 미끼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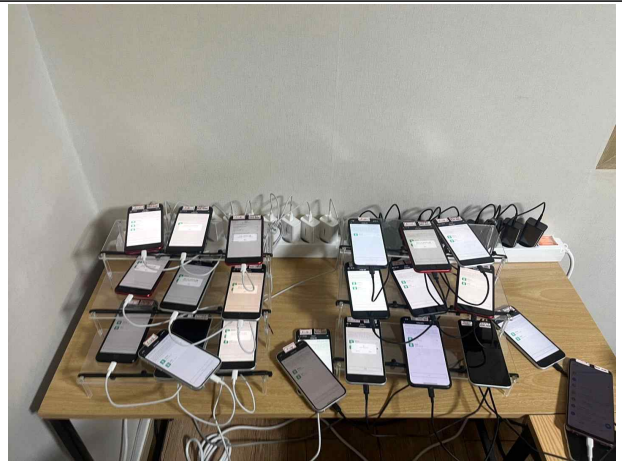
	
해외 카드 발급 및 결제 사칭 문자	

	
택배 사칭 문자	부고장 사칭 문자

※ 전화번호, 회사명 등 개인정보는 반드시 삭제 처리

붙임4

적발한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주거지에 숨겨놓은 중계기 압수품



산속에 숨겨놓은 중계기



USB 포트 형식의 중계기

사건조회 안내

기관별 사건진행상황을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010567



사건번호:2024조사 7403호

접수인 :

접수일자 : 2024년 1월01일

사건번호 : 2024 조 사 7403호

급수 : 특급

부록 : 아래와같음

형사 제 1부 - 268

검찰법무관 : 백 석 상

요지 : 단속접수지 2024 조 사 7403 특급 사건 김**등 성매매 특별법 및 자금세탁,불법 명의도용 사건. 개인명의도용
침해신고접수를 받음과 동시에 계좌양도 및 가해혐의거나 개인명의도용 피해자라는것을 본인 스스로 해명해야함.

1. 행정법규절차14조2항에 근거하여, 서울 중앙지검 수사과에서 행정집행사건을담당, 단속접수자를 통보하여 반드시 본인의 계좌자금상증명,재산
상황 혹은 기타 필요한 진술을 우선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2.본사건은 2024년.금융집행 (100001호~100286호) 단속접수자관련돈세탁방지법사건, 단속접수자는 요지에 기록된 시간에 모든재산자료(포
함한 토지, 주택, 예금, 투자, 임금 및 기타 소득) 및 재산상황을 합법적인 재산임을 증명,감독 받아야함.

3. 금융법 39조3항에 따라 합법절차에 따라 본인은 계좌추적조치를 통해서 금융실명제의 원칙에 따라서 본인명의의 모든 합법적인 계좌에 대해 인적
사항 자산이거나 모든 부당한 거래내역을 조회를 하여 투명성을 입증시켜야함.

4. 단속접수자는 집행명령이 발효된시간(여상)내에, 만일 본 사건의 조사,집행내용을 제3자한테 전하였을경우(제3자 포함), 본처 및 관계기관(금융감
독원)에서는 금융법39조 17항 따라서 즉시 본인명의로된 재산자료(포함한 토지, 주택, 예금, 투자, 임금 및 기타 소득)를 동결처리하는것입니다. 단속
보호자는 다른 반대의견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5. 단속접수자는 수사진행과 동시에 휴대기기 검열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 해야함.
시행 주요사항)

- 1.사이버수사대 주관하에 검열을 진행할 것.
- 2.개인정보 유출 확산방지
- 3.범인도피 및 은닉 또는 증거인멸,증거은닉에 대한 우려 등
- 4.수사협조 기간내 조사자 신변보호에 관련한 이동경로 및 화면녹화 등
- 5.수사협조 진행과 동시에 수사협조 관련 지출내역 발생시 수사협조 비용 지급 됨.



대검찰청 총장 이원석

기안자

홍충천

과장

대검찰청 총장

이원석

대검찰청 총장

이원석

기안자 : 정난희 (인) 정 난 희

사건과장 : 박충만 (인) 박 충 만

검찰조사관 : 김정규 (인) 김 정 규



【주관기관 : 서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관계기관 :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우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

COPYRIGHT (c) 2010 SUPREME PROSECUTORS' OFFICE. ALL RIGHTS RESERV

처음으로

다음으로

KIOS 형사사법포털



※ 이름 등 개인정보 반드시 삭제 처리



악성 앱 아이콘
(시중 은행 앱과 같은 아이콘)



악성 앱 화면
(대출 신청서처럼 제작)



<https://youtu.be/lrWFldZmoDc?si=OjowO-zMPnZnqZHP>

다음 중 진짜 은행 대출 전화는 무엇일까요? :
 😊
 조회수 1.2천회 • 4일 전



https://youtu.be/zQ_S6dV3Crk?si=r7brzZtvJxAGNrqq

(중요) 지금 이 음성은 실제 보이스피싱 음성 :
 입니다.
 조회수 1.5천회 • 5일 전



<https://youtu.be/5m07jJ0XvM8?si=JLl2HLW-EQj4y8Yx>

보이스피싱, 단지 내 차례가 아닐분? :
 조회수 20만회 • 6일 전



<https://youtu.be/BVvqdBSw1b4?si=fkPc-0VzMN3xef0y>

또 못살게 구네!?! (feat. 범죄도시 장이수) :
 조회수 6.7만회 • 6일 전